

“함평읍 중앙길 일방로 지정 해제해 달라”

한때 함평 대표상권이었던 함평읍 농협 사거리부터 구 한전구간 상권이 무너지면서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을 관통하는 중앙(도로)길이 차량의 한방향 통행만 가능한 일방로로 전환된 후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지역민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일방로 지정을 해제하고 도로폭을 넓혀 보행로 확보 및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함평군은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사실상 두 손을 놓은 채 방치하고 있다.

11일 함평군과 함평읍 상인 등에 따르면 농협 함평군지부 앞 사거리에서 구 한전까지 연장 600여m(도로폭 4~5m)의 거리는 군청 등 관공서가 밀집돼 한때 함평읍의 핵심상권이자 중심로였다.

농협사거리~구 한전 구간

90년대초 지정후 쇠락의 길

도로 넓혀 보행로 확보 요구

郡, 예산 없어 정부에 기대

1980년대만 해도 중앙길 주변에는 군청을 비롯한 경찰서, 교육지원청이 아직까지 이곳 주변에 자리잡고 있으나, 대다수 기관은 차량진입 등 불편한 접근성과 주차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이전한 상태며, 군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도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인들은 또 중앙길 상권 침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일방로를 따라 박혀 있는 흥물스런 전봇대를 지목하고 있다. 전봇대가 50m 간격으로 도로폭이 4~5m에 불과한 도로 가장자리 차선에 맞물려 있는 탓에 보행자 인도를 확보할 공간조차 없는 상태.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상권 침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곳 상인과 주민들은 중앙길 일방로 해

제로 이전하면서 빈 상가들만 넘쳐나고 있다.

그나마 군청과 경찰서, 교육지원청이 아직까지 이곳 주변에 자리잡고 있으나, 대다수 기관은 차량진입 등 불편한 접근성과 주차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이전한 상태며, 군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도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인들은 또 중앙길 상권 침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일방로를 따라 박혀 있는 흥물스런 전봇대를 지목하고 있다. 전봇대가 50m 간격으로 도로폭이 4~5m에 불과한 도로 가장자리 차선에 맞물려 있는 탓에 보행자 인도를 확보할 공간조차 없는 상태.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상권 침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곳 상인과 주민들은 중앙길 일방로 해

제 및 활성화를 위해 군 변영화를 주축으로 서명운동을 비롯한 민원을 군청과 군의회,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 제기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서로 책임만 떠넘긴 채 예산타령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 상인은 “일방로 인근 주민들은 상권 침체와 재산권 행사까지 어려움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전봇대 지중화와 도로폭 확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중앙길 일방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했으나 탈락해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방로 해지에 앞서 도로확장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며,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 읍소재지 정비사업 등 정부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혁기자 hwang@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 전시관’ 개관

무안군이 분청사기 명장 전시관을 개관했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동탄면 사천리에 조성한 ‘무안 분청사기 명장 전시관’이 지난 5일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철주 무안군수를 비롯한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 무안군 분청협회 회원, 대한민국명장협회 회원,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무안의 분청사기는 타지역 분청사기보다 여러 면에서 우수한 문화자원으

로 가치가 있다”면서 “명장전시관 개관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무안 분청이 세계적인 명품 도자라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분청사기 명장 전시관은 2층 규모로 우리나라 전통 분청 찻사발을 형상화해 건축했으며, 광주·전남지역의 유일한 대한민국 도예명장인 김옥수 작가의 작품과 지역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분청사기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명장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도 갖추고 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신안군 상반기 관광객 80만명...11% 증가

신안군을 찾는 관광객이 전반기동안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을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해 1~2분기 72만명에서 올해 같은기간 80만명으로 8만명이나 늘었다.

지역적으로 증가가 26만3000명에서 30만7000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입차도가 틀림없게 개최 등의 영향으로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

관광객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수도권 인구의 접근성이 개선된데다, 남도 성지순례 관광객 유치 시책 추진과 코레일 광주분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자전거 라인 상품 개발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안군은 앞으로 증도-저은간 여객선 취항, 새천년대교 개통 대비 자전거 대회 개최, 아트 캠핑, 코레일과 연계한 MTB 투어 상품 등을 전 읍면으로 확대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관광객 증가는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관광 기반시설 투자와 요즘 트렌드에 맞춰 아트 캠핑, MTB자전거 여행 상품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린 다양한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해에만 18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목포무안신안축협 대학생 33명에 장학금 4950만원

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 문만식)은 최근 녹색한우타운 3층 회의실에서 2016년도 축산인 후계양성을 위해 조합원 대학생 자녀 33명에게 총 49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문만식 조합장은 이날 “장학금을 받은 인재들이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자랑스러운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무안신안축협은 나눔경영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촌경제를 살리고

자 젊은이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매년 조합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장학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있다.

한편 축협 임직원들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도 실시된 모은 성금으로 무안고등학교에 행복장학금 500만원과 신안군에 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을 기증하고, 무안지역사회에 사랑의 쌀 200포를 전달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영광 대마산단 입주업종 11개로 늘려

금속가공·복합업종 등 추가...투자 유치 탄력 기대

영광지역의 미래를 이끌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조감도)가 입주업종 확대를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11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8일 대마면 송죽리에 소재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대마산단)의 개발 및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됐다.

그동안 대마산단입지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5개 업종 중 블록별로 단수업종만 입주가 가능했지만, 이번 실시계획 변경승인으로 금속가공 등 11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지면서 산단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입주허용 업종은 ▲식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연구개발업 11개 업종으로 확대됐으며, 복합업종 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특히 산업시설 면적의 30%이내에서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업종생략 블록도 설정됨에 따라 입주 희망 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입주업종 다양화로 업종규제 때문에 입주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광=백형진기자 phj@



“한빛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 안된다”

영광군의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규탄 성명서

영광군의회는 “최근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정부가 7월 25일 심의·확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해 중간저장시설은 201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에 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의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함에도 원전 소재 주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국민과 소통하

지 않으려는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확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또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중간저장시설 운영 이전까지 사용 후 핵연료 추가 건설 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영광군민이 그토록 우려했던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에 따른 모든 사항은 반드시 군민의 동의를 얻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평택 토지 매매

★ 삼성전자 120만평 ★ LG 11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도 후회 없습니다.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송탄역 5분 (송북시장) / 토지 184평
오피스텔 66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15억 발생
▶ 매가 12억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송탄역 2분 / 토지 358평
오피스텔 (207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37억원
▶ 매가 30억

평택 토지 (소액 투자)

- ①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322평 (평당145만) 고덕 신도시 5분 - 계획관리지역 ▶ 매가 4억 6천 700만
- ②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 301평 (평당 170만) 마산산단 과 Lg산단 정문에 위치 (원룸부지 빌라부지 특A급 토지) ▶ 매가 5억 1천 700만
- ③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고덕 신도시 5분) / 613평 (평당 95만) ▶ 매가 5억 8천 235만

커피숍 임대

전대 정문 2분, 모아아파트 후문 (코너)

커피, 식사, 맥주 판매

※ 20평 (코너자리)

※ 시설비 무료

단골손님 다량 보유 / 사업자 대출 2,000만 가능

▶ 보 1천만, 월 40만

사무실 임대 (1층)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 1층 (30평) ● 리모델링 완비

화장실, 휴게공간 별도 있음 / 부동산, 사무실, 모든업종 가능

▶ 보 2천, 월 100만

오피스텔 및 사무실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6층 - 45평
- ▶ 최고급 인테리어 (약 5평 저은 썬닝방 1개) (시설비 약 4천만) (사무실 2개)
- ▶ 천변로 전망 최고 !! 주차 원비 (사무실 최적함)

★ 매가 1억 4천만 ★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읍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

- 토 151평, 건 43평
- 영광 터미널 5분 (농가주최 최적함 !!)

▶ 매가 8천 500만

010-6670-9800

010-7384-7800

062-382-5500 010-6834-4800